**현대미술의 시작**

사실성의 대두(현대미술의 본격적 시작) ~~상상에서 현실로

주제적인 면에서 현실 사실성의 대두

쿠르베 리얼리즘 선언 : 나는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반면, 현실의 세계를 보여줌. (다른작품과 비교했을 때)

<안녕하세요, 쿠르베씨> 화가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려야 한다. 아직까지 색채적인 면에서 근대쪽으로 오지 못함. 사실성의 대두라는 중요한 것을 던짐.

사실성의 대두로 인해서, 풍경화가 유행. 바르비종 화파. 밀레 등

본격적으로 모던아트의 시작이라고 하면 인상주의부터 시작.

모네 – 해돋이 인상이 출발점. 1872 . 1874년에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

인상주의 특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기의 빛을 포착한다. 사실성의 대두에서 훨씬 나아가서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의 빛을 포착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

주관성 많이 드러남. 인상주의는 주관성이 들어간다. (차이점) 쿠르베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 집어넣음. 인상주의는 화가의 주관성 들어간다.

평면성, 물질성 – 형식주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림에서 이야기를 찾는 것이 습관. 근데 올랭피아에서는 이 여자가 창녀다. 하고 논란. 어떤 사람(이름 까먹음ㅎ)이 여자가 누군지 이 고양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림은 색채와 형태의 구성의 조화이다.

형식주의로 나아가는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 형식성과 물질성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된다.

인상주의에 오면 본격적으로 평면성, 물질성이 중요하게 되고, 무엇보다 빛을 포착하기 때문에 순수한 색채중요. 평면성 관점에서 스페인 바로크 미술 일본 목판화 우키오에 영향도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 원근법. 위에 소실점 두고.

앵그르 : 에로틱 아름답게 그림. 세잔느 – 모든 형태는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 견고한 구조를 바라보고 이 것을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재구성해야 한다.

1906 더 발전이 된 모습. (피카소 그림)

고갱은 색채에 더 관심.

형태 색채의 자율성이 이루어지며 20c에 오면 추상미술이 탄생.

1974 첫 인상주의 전시회 인상주의의 출발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 카메라의 발명.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 – 사진 /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자신의 관점, 시각 (주관성)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인상주의에는 주관성이 들어간다.

르노아르 – 인상주의에서 냉온대비법 보여줌. 어두운쪽 차갑게, 밝은 쪽은 따뜻하게. 색채의 순수성을 찾고 있음. 1881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상주의가 와해되는 기미. 고전으로 다시 복귀하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됨.

모더니즘 미술 – 구성/ 질서

평면성 물질성 나아가게 되면서 회화는 회화자체의 구성과 질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빛을 좇다보니 흐트러진 형태를 세잔느가 다시 견고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다.

->후기 인상주의(인상주의에서 벗어난다). 세잔느가 형태의 자율성. 형태의 문제 제기.

캔버스의 틀을 굉장히 강조. 눈이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틀을 굉장히 강조. 나뭇가지들이 마치 커튼처럼 .. 회화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세계다.

세잔느 – 조끼 입은 소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중요x. 팔을 길게 . 커튼하고 구성을 이루고 있다.->형태의 자율성

정물화 사과 냅킨 서로서로 관계를 이루며 질서 있게 배치. 다시점이 들어오게 됨. 세잔느는 본질 파악해야 하므로 다시점 들어오게 됨. 다시점으로서 본질을 파악한다.

세잔느 <수욕도> 모든 사물은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되어 있다. 견고한 구성과 질서 강조.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 훨씬 더 발전. 정면 측면 등 다시점. 모든 형태 기하학적으로 분석. 공간도 하나의 형태로서 서로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기하학적 입방체로 구성되어있다면서 하나의 평면성 이루게 하려고. 형태 분해 재배치 또한 배경도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으로서 형태화되고 있다. 🡪큐비즘, 입체주의

입체주의는 사실 세잔느의 영향.

색채가 대상을 묘사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무한히 자유롭다.

색채의 자율성 – 고갱. 현대미술이 형태 색채의 자율성 이루게 되면서 20c 되면 추상미술이 들어오게 됨.

후기 인상주의 – 세잔느, 고갱, 반 고흐 . 화가의 생각 감정을 표현한다. 세잔느가 보다 관념적 성적 이지적. 반 고흐는 감성적 충동적. 고갱은 색채(낭만적, 신비적). 세잔, 고갱, 반고흐를 일컬어 후기 인상주의.

20c 들어와 냉온 대비법 훨씬 발전. ->야수주의

**현대미술과 일본미술과의 만남**

일본 목판화가 큰 영향 미쳤다. 자포니즘 : 일본미술에 받은 영향을 조형미술에 다양하게 응용해서 새로운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만들어내는 일. 대표적 :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

브라크 몽 – 호쿠사이 망가 발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일본 미술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함.

형태에 영향, 세잔느 조차도 보여줌. 정치적으로 본다면 서민적으로 보임. 그래서 유럽 화가들 눈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자유 평등 박애 외칠 때,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 일본을 일종의 낙원이라 생각. 일본의 우키오에의 영향->구도법(중요한 것이 짤리는). 원근법에도 약간의 변화. 특히 기하학적인 수평 수직을 통해서 평면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키오에의 원근법의 변형이다. 유럽사람들 눈에는 이런게 일종의 베일처럼 보여서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임.

추상미술

칸딘스키가 추상회화 먼저 시작. 추상미술의 탄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칸딘스키가 뽑은 것이 모네의 건초더미에서 받은 인상(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음악에서 영향. 원자분열 등의 과학기술의 발전. 🡪추상미술 탄생의 배경이 된다.(인상주의 음악 과학기술이 크게 좌우)

러시아 – 말레비치와 같은 추상 미술 등장. 이를 절대주의라 한다. 회화를 종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림. 정신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추상이다. 말레비치 – 오브제 없는 세상.

추상표현주의 – 유럽에서 온 많은 거장들에 의해서 미국 미술계가 자극.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미국적인 정체성을 가진 미술에 대한 열망.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가 탄생.

추상표현주의 – 페기 구겐하임과 베티파슨 화랑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 거치며 하나의 미술 사조 형성. 액션페인팅, 색면회화. 그린버그는 추상표현주의 옹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함.

잭슨 폴록 :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융과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관심. 1947부터 드리핑 기법 했다. 캔버스의 표면을 굉장히 2차원으로까지 끌고가려 함. 채도에 의해 완전 평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평면성과 물질성으로 향하는 모더니즘 미술의 절정에 왔다고 평가.

동양서체의 영향도 감지.

유럽 전통적인 미술의 영향도 보여짐.

신체의 제스처 통해 감정 본능을 드러내는 것 – 액션페인팅

색면을 통해서 절제되고 형이상학적인 명상 사유작용으로 관람자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이 색면 회화의 특징.

로스커 – 자신의 회화를 초월적인 경험이라 설명.

바넷 뉴먼은 – 자신의 회화를 숭고로 설명. <영웅적인 숭고를 향하여>. 영웅성, 숭고. 회화를 일종의 신앙적 종교적 체험으로 끌고가려 함. (바넷뉴먼과 로스커) 색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명상하기를 바람.

바넷 뉴먼의 zip의 의미, 조형성.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 영향 받았다.

**후기 색면회화**

결국 모더니즘은 평평한 표면으로 가는 것까지 발전.

맨 나중에 보면 결국 틀을 강조하다 보니 부조처럼 되어 버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가게 됨.

범위는 후기 색면주의까지! 주관식으로 2~3문제. 21일 휴강>< 시간은 1시간 10분.